



포커스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의미와 시사점

서정민 교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커스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의미와 시사점 통일 돋보기 통계로 알아 본 6.25 한국전쟁 Today 남북 제7차 노동당대회 전후, 우표로 읽는 '오늘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한국' 안정되면 세계 경제 5~6위 안에 들 것 통일 Talk 통일-북한인권 신문으로 통일 필요성 알려요! 좌충우돌 남한적응기 '착하다'고 칭찬했는데 '바보'라고 알아들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느낌 있는 여행 이 계절의 청명할 강원도 화천 통일 웹툰 대체 스프링을 사러 어디로 간 거야? 통일 레시피 낙지 아닌 오징어로 만드는 '낙지순대'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정부 3.0 **지나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건의**

<p>통일 플러스</p> <p>포커스 통일 돋보기</p>	<p>통일 스토리</p> <p>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남북공감</p> <p>Today 남북 좌충우돌 남한 적응기</p>	<p>민주평통365</p> <p>해외지역회의 해외자문위원 인터뷰 NUAC 뉴스</p>	<p>즐거운 통일</p> <p>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심표, 느낌표</p> <p>이벤트 당선작 이벤트 ① 이벤트 ② 이벤트 ③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박근혜 대통령 이란 방문의 의미와 시사점

서정민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한-이란 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수교 54년 만에 양국 간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새 물꼬도 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협력에 대한 정부 및 기업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대통령과 동행한 결과다. 구두 합의 사업까지 합쳐 수주액은 456억 달러, 약 52조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한-이란의 역사적 관계, 이란의 시장규모 그리고 중장기적 협력 잠재력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화적으로도 더욱 가까워졌다. 다양한 공연과 시범 그리고 이란 젊은이와의 소통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했다. '대장금', '주몽' 등 한국 드라마의 최고 시청률을 보인 이란은 향후 한류의 거점 국가가 될 것이다. 방문 국가 전통을 존중한 대통령의 루싸리(이란의 머리두건)와 국기 색깔 의상 착용은 이란 국민의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반응도 끌어냈다. 박 대통령은 이란을 방문한 첫 번째 비이슬람 국가 여성 정상이었으며 이란 언론은 이란 전통을 존중하는 박 대통령의 행보에 이례적인 관심과 찬사를 보냈다.

미래 중동 패권국과 거리 좁혔다

경제체제가 해제되면서 이란은 중동의 패권국가로 부상할 것이 자명하다. 이란은 세계 4위의 석유 그리고 1위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구리, 철광석, 아연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나라다. 수자원도 다른 중동 국가에 비해 풍부하고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다. 인구도 8,000만 이상으로 거대한 시장이다. 터키와 이스라엘에 이어 중동 내 세 번째 군사대국으로 정규군 40만 그리고 공화국수비대 12만과 더불어 100만 이상의 예비군을 운용하고 있다. 전투기와 잠수함을 조립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중장거리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와는 다소 불편한 정치·외교적 관계에 있었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란이 반미국가가 되고 1980년대 8년간 이라크와 전쟁을 펼치면서 이란은 북한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졌다. 여기에 2002년부터는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때문에 정상회담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은 이런 정치·외교적 거리를 크게 좁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발언을 내놓았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핵개발도 반대한다. 특히 한반도와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원칙이다.”

“어떤 핵개발도 반대한다”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결과는 파격적이었다.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관련해 중대한 발언을 내놓았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떤 핵개발도 반대한다. 특히 한반도와 중동에서 위험한 무기,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본원칙이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핵 대치를 벌이던 국가의 정상의 발언이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군사적 그리고 전략적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란의 절대 권력자이자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의 면담도 의미가 있었다. 하메네이는 “테러와 지역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이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한-이란 양국이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란의 대외정책 기조를 직접 관장하는 최고 통치권자의 입장이다.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했던 중동 패권국의 지도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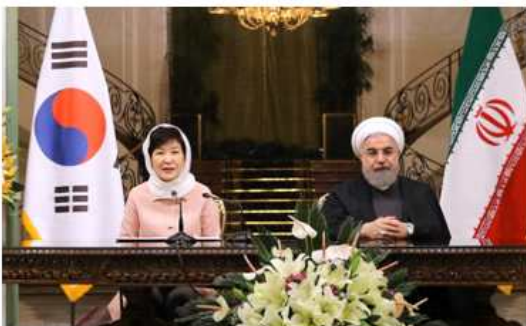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와의 면담 효과는 이란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슬람권의 15%를 차지하는 약 2억 5,000만 시아파의 정신적 지도자다.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시아파가 집권하고 있다. 레바논의 최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도 시아파다. 그리고 바레인 인구의 70%, 쿠웨이트 인구 40~50%가 시아파다. 예멘 북부, 사우디 동부 등에도 시아파가 밀집 거주하고 있다. 이번 면담 자체가 중동 내 대북 압박 여론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란과 시리아 그리고 헤즈볼라가 친북한 성향이 강한 국가 혹은 정파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존의 길을 선택한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실효성을 존중하고, 핵무기 개발이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북한은 최대 우방도 잃고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방위 압박과 궁지에 몰리는 북한

이란과 서방의 핵협상 타결은 북한 정권에 ‘따끔한 일침’이다. 13년 만의 핵 협상타결로 서방의 경제제재에서 벗어난 모델이 등장한 것이다. 이란은 핵무기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대화를 통해 핵 협상 타결과 개혁·개방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북한에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제 북한 핵개발은 서방과 대치하는 유일한 핵문제로 남았다. 이란 문제 해결로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 외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게 됐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과 현재 가장 밀접한 군사적 관계를 가진 국가, 이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

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은 크게 다르다. 이란은 원자력발전을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핵개발의 목표다. 때문에 핵무기 개발을 완전히 포기하고 저농축 우라늄만 생산하겠다는 이란처럼 북한이 양보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란이 보이는 약간의 자세변화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협상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존의 길을 선택한 이란의 최고 지도부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지지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 실효성을 존중하고, 핵무기 개발이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제 북한은 최대 우방도 잃고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진. 청와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창작한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6·25 한국전쟁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약 3년간 지속됐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한 한국군이 13만여 명에 달하고 320만 명의 피난민과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다. 한국전쟁 중 치열했던 전적지와 전쟁으로 인한 인구변화, 영토변화, 3.8선과 휴전선의 차이, 그리고 전쟁 후 지명이 바뀐 지역 등을 각종 도표와 그림을 이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본다.

국면전환을 가져온 6·25전쟁 격전지



⑩ 백마고지 전투('52년 10월)
국군이 중공군 3개사단을 대상으로 철원북방 고지를 빼앗고자 12차례의 공방전을 거치고 7차례의 주인이 바뀌는 혈전을 거듭한 끝에 고지 확보

⑨ 저격능선 전투('51년 10~11월)
중부 전선 철원 금화지역에 배치된 국군과 중공군이 맞서 작전주도권을 빼앗기 위해 공방전을 벌인 전투

⑥ 용문산 전투와 파로호 승리('51년 5월)
국군이 용문산일대에서 중공군의 공세를 방어해 큰 타격을 입힌 퇴각하는 중공군을 화천저수지에 수장시킨 공격적 전투

⑤ 지평리 전투('51년 2월)
미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전술적 요충지인 양평 지평리에서 중공군과 백병전까지 사수한 전투로 아군의 반격작전 기반 마련

③ 인천상륙작전('50년 9월)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해 전세를 뒤바꾼 군사작전. 이튿날 낙동강전선에서 총반격작전으로 전환

④ 장진호 전투('50년 10~12월)
미군이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에 포위돼 전멸 위기를 겪었다가 성공한 후퇴 작전. 이로 인해 군과 피란민 20만 명이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었고, (흥남 철수 작전) 서부전선의 미 8군이 중공군을 방어할 수 있었음.

⑧ 단장의능선 전투('51년 9~10월)
국군과 미국이 양구와 인제 일대고지에서 적군과 1개월간 일진일퇴의 백병전을 거듭해 승리한 전투

⑦ 피의능선 전투('51년 8~9월)
국군이 양구 북방의 고지일대를 공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격퇴한 공격전투로 피·아간 1만7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 피로 능선을 물들었다 해서 피의 능선이라 불림

① 동락리 & 화령장 전투('50년 7월)
국군 병력 열세로 후퇴하는 중에도 북한군을 기습해 큰 피해를 준 전투

② 낙동강방어선 전투들('50년 8~9월)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부근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북한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계기가 됨 (다부동 전투, 영천지구 전투, 포항 학도의용군 전투 등)

※ 자료 : 육군본부 육군역사연구소

6·25전쟁 인구변화

민간인
남자사망자
764,281명



민간인
여자사망자
226,687명



가축감소
2,928,180마리



1949년 10,200,877명
1955년 10,766,777명



1949년 9,987,764명
1955년 10,759,597명



1949년 20,188,641명
1955년 21,526,374명



※ 막대한 인명 피해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총 인구가 전쟁 전보다 늘어난 것은 전쟁 기간 중 북한에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

※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영토변화



6.25 전쟁 후 우리가 잃은 지역

황해도 남부 해안가, 부속 도서(옹진, 강령, 청단, 연안 등 황해도의 해안가 일부 지역), 경기도 개성시

6.25 전쟁 후 우리가 얻은 지역

경기도 지역 연천 및 포천지역, 강원도 철원 및 양구, 인제, 화천 등지



※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양쪽 2km의 지역을 설정해 이 지역에서는 무장을 금지하고 국제감시 위원회에서 감시토록 함. 남북 병력이 아닌 유엔군 등 제 3자가 현장에 주둔.

파로호 강원도 화천저수지는 한국전쟁 화천전투 때 북한군과 중공군 수만 명을 수장(水葬)한 곳이라 하여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이 파로호(破虜湖, 오랑개를 무찌른 호수)라고 명명했다.

아바이마을 행정상 명칭은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출신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불리게 된 속칭.

편치볼 강원도 양양군 동면 만대리에 위치한 400~500m 고지의 해안분지. 한국전쟁 당시 중군기자가 분지 모양을 보고 화채그릇 같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

※ 자료 :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지구 정 반대편, 아마존과 안데스 산맥, 갈라파고스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에콰도르. 에콰도르는 65년 전 한반도가 6.25전쟁으로 초토화됐을 때 남한을 도왔던 오랜 우방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곳에 지난 4월 발생한 지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생겨났고,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이 상당부분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한국인들은 6.25 당시 한국을 지원한 에콰도르에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 에레라 길버트 주한 에콰도르 대사를 만나 지진피해 현황과 지원방법 등을 듣고, 한반도 분단과 평화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3 피해 현황 파악 중, 갈라파고스섬과 아마존은 '관광 가능'

에콰도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도움과 애정이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는 1단계 인명구조, 2단계 피해자 치료, 3단계 재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2~3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및 건설사들과 협약해서 에콰도르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장기적인 재정 펀딩 등을 준비중입니다.

민주평통은 한국뿐 아니라 117개 국가 자문위원들이 한인사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한국분들이 에콰도르의 지진피해 복구를 도우시려면, 에콰도르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에 계신 경우 물자지원보다는 현금지원이 효과적입니다. 물자를 에콰도르까지 수송하는 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이죠. 반드시 물자나 현금지원이 아니더라도 관광을 통해서 에콰도르에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관광이 많이 취소됐는데, 마나비와 에스메랄다 등 집중 피해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갈라파고스섬 등은 충분히 관광을 즐길 수 있어요.



▲ 갈라파고스 바다 이구아나

▼ 갈라파고스펭귄



▲ 갈라파고스 펠리컨

3 한국은 경제협력에서도 '에콰도르의 아주 특별한 우방'

에콰도르가 65년 전 한국을 도왔던 건, 에콰도르가 무기를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등한시할 수 없어, 군대 파견보다는 식량 등 물자 지원을 택했던 것입니다. 6.25 때의 인연 외에 특별한 인연이 또 하나 있어요. 현재 대통령의 이름이 라파엘 코레아(Correa)인데, 한국(Corea, 스페인어)과 발음이 같아요. r의 개수가 2개라는 것만 다르죠. 이름 때문만이 아니라 코레아 대통령은 한국전쟁 후 경제발전 모델에 열광하시는 분입니다. 미국 유학당시 대통령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 중에 현재 한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학생들이 많았는데 똑똑하고 성실한 국민성에 크게 매료됐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한국과 많은 사업들을 같이 해나가고 싶어 합니다. 현재 송도와 대덕벨리를 벤치마킹한 지식기반산업도시 '야차이'를 건설 중인데, 여러 한국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한국 교수들이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아시아에서 무역협정을 한다면 유일하게 하고 싶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한국과 SECA(전략적 경제동반협정)를 추진하고 있고요. 에콰도르는 기술 개발 분야에 많은 성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좋은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야겠네요. 현재 에콰도르에 수입되는 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현대 기아 자동차입니다. 특히 포니는 70년대 에콰도르에 수출된 첫 번째 한국차인데, 택시로 운행 중이던 차를 사가지고와서 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했어요.



▲ 현대자동차박물관에 기증한 에콰도르 수입차 포니

3 에콰도르는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대북제재 한목소리 낼 것

6.25전쟁 이후 한국 분단이 계속되는 데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가족은 항상 함께 하는 게 순리인데, 이산가족들은 함께할 수가 없니까요. 통일과 관련해 저는 에콰도르의 공식 입장과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에콰도르는 한반도 비핵화를 찬성하고 평화를 지지하며 필요한 순간에는 통일에 대해 당당히 찬성의지를 밝히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대북제재 역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가량이 지나면 북한도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와 달을 것이고, 북한도 핵무기 개발을 재고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보다는 6개월이나 1년이 지난 이후가 적절한 시기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가서는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화의 장을 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 통일 쇼크 극복하면 한국은 세계 5~6위권 진입할 것

통일이 되면 북한이 빈곤하기 때문에 개발 측면에서 남한보다 북한이 이득을 많이 보겠지요. 상대적으로 부유했던 서독이 경제 쇼크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남북통일 역시 단계별로 이뤄나가면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6.25전쟁 후 피해복구, 경제발전을 훌륭하게 이뤄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해나갈 거라고 봐요. 통일 후 어느 정도 충격을 극복한다면 넓어진 영토, 늘어난 인구와 더불어 북한지역의 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이 통일된다면 세계 5~6위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질 거라고 예상해요.

한국에 오기 전 '동양 국가'의 이미지를 상상했지만 2010년 처음 왔을 때 매우 서양화된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서양의 모델을 닮으려 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닮고 싶은 모델이 됐으니까요. 작년에 중국에서 임기를 마쳤을 때 아시아가 아닌 다른 대륙으로 가고 싶었지만, 대통령께서 한국 대사직을 제의하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한국은 배울 점이 매우 많은 국가거든요. 경제개발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다른 선진국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본 가치'가 많이 남아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아요. '기적'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건데, '한국의 기적'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답은 국민인 거죠. 이런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근면성실한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국민들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 고유의 기본적인 인간 가치들을 지켜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통일·북한인권 신문으로 통일 필요성 알려줘!

전국연합 고등학생 동아리 '웨이브'

오후 6시,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
학교 수업종이 울릴 때까지 교정을 서성이자
'웨이브' 회장 준혁 군이 달려 나왔다.
고3 수험생이 통일·북한인권 동아리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
이 친구, 6년차 활동중이다.
준혁이를 비롯한 웨이브 학생들은
통일·북한인권 신문 제작은 물론
전시회, 포럼을 개최하고 탈북대학고
학생들까지 돌봐주며 바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6월 토크참가자



곽준혁(용인외대부고 3학년, 연합동아리 회장)

설립 초창기인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출근 웨이브와 함께 해왔다. 웨이브신문 취재를 위해 많은 탈북민, 통일관련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생각을 바탕으로 꾸준한 통일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통일이 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준혁이는 올해 재현이, 승원이와 함께 한 국제 청소년 창업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실력파다.

안재현(2학년, 동아리 부장)

승원이와 함께 용인외대부고 웨이브를 이끌고 있다. 모의의회에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것을 즐긴다는 재현이는 사람들이 '신문 잘 보고 있다'는 말을 해줄 때 파급력을 실감하고 보람을 느낀다. 특기는 수학, 꿈은 컨설턴트다.



강승원(2학년, 동아리 부장)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한 용인외대부고 웨이브의 동력.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 자체가 수익모델이 되는 기업을 만드는 CEO가 꿈이다. 그런데 얼마 전엔 맹자 강의를 듣고 감동받아서 정치가로 진로를 바꿔볼까도 생각중이라고.



구윤찬(1학년)

통일 독일 경제에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이든 통일이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 전국 10여개 학교 학생들이 모여 만드는 웨이브 신문

준혁 :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웨이브(WAVE: World Association of Volunteering Elites)’는 용인의대부고가 중심이 돼서 한영외고,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 민족사관학교 등 10여 개 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연합동아리로, 2011년 결성됐어요. 통일과 북한인권 관련 소식을 전하는 웨이브신문을 만들어서 학교나 관련기관, 해외 북한인권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4주년 특별판’인 23호를 발행했어요.



e-행복한동일 : 신문 발행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준혁 : 매년 북한인권 릴레이 사진전시회를 열고, 관련 분야 포럼을 개최해서 친구들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탈북학생들을 돕기 위해 ‘남한 말 책’과 ‘역사유적지 앱’도 만들었어요. 웨이브신문 취재를 하다 알게 된 건데, 탈북학생들이 남한 은어(隱語)의 뜻을 잘 몰라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 뜻풀이 책자를 만들었고 올해 개정판을 냈어요. 또 남북간 역사교과 내용이 달라 많이 어려워한단 얘길 듣고 지하철 노선도로 역사유적지들을 알려주는 앱을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어요.

이런 전국 연합동아리 차원의 활동이 아닌 개별 프로젝트도 진행해요. 용인의대부고는 ‘날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날개 프로젝트’란 탈북대안학교 한 곳을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조사한 뒤, 1년간 그 소원을 이뤄주는 활동이에요. 작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재현 : 탈북대안학교 아이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견학을 가거나 피자, 치킨을 사 들고 찾아가기도 했고 1년째 되던 날엔 크리스마스 파티도 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아픈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처음엔 우릴 보고 서먹서먹해 했지만 가까워지게 되자 나중에는 가지 말라며 아쉬워하더라고요.



🏠 한반도 통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외국 학생들이 많다는 데 놀라

준혁 : 웨이브 활동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맘 먹은 건 중2학년, 미국 모의의원대회에 갔을 때예요. 외국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여 명 중 6명 만 북한이 ‘3대 세습 체제’라는 걸 알고 있었고, 한반도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도 2명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중에 일본 청년포럼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한국의 통일을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에게 최대한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덕분에 웨이브 활동을 꾸준히 해오게 된 것 같아요.





재현 : 저는 정치나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아서 모의국회에 참가해 토론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기아와 빈곤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면서 5초를 쉰 다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사이 지구 어딘가에서 또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죽었다'고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어서 기아나 난민들을 위한 동아리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북한인권활동을 하는 웨이브를 알게 됐죠. '세계평화 청소년 리더십 포럼'에 참가했을 때 패널 중 한 분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도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듯,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쌓여서 결국에는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한 게 인상 깊었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방법을 찾다가 웨이브에 들어오게 됐어요.

승원 :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북한인권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긴 했지만 좀 막연한 생각을 갖는데 그쳤던 것 같아요. '북한이탈 청소년 지원 방안'을 주제로 소논문을 썼을 정도로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웨이브에 꼭 가입하고 싶었고, 실제로 활동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세계평화포럼에 갔을 때, 외국인들은 북한실상에 대해 정말 잘 모르단 걸 느꼈고, 웨이브 신문을 통해서 해외에도 자세히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포럼 도중 스페인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처음에는 축구이야기로 친해졌다가 나중에 제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비록 개인적인 작은 활동이지만 그렇게라도 통일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윤찬 : 저도 평소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아 웨이브가 흥미롭게 다가왔고, 중학교 때부터 웨이브 활동을 했어요. 청소년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거든요. 올해 한 초등학교에서 사진전을 열었는데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좋았어요.

4주년 특별호는 영문판도 준비, 신문 잘 읽고 있다는 말이 큰 힘 돼

재현 : '솔직히 요즘엔 신문도 잘 안 읽는다는데 고등학생이 만든 신문을 누가 볼까?'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NGO에서 근무하시는 고모도 웨이브신문을 알고 있다고 하시고 인터뷰를 위해 만난 사람들이 '신문 잘 읽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셔서 고마웠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파급력 있는 매체란 자부심이 생겼죠.

준혁 : 처음에는 신문을 지인들이나 친구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 초·중·고등학교와 관련 기관, 탈북대안학교, 폴란드·미국 워싱턴의 북한자유연합, LA Link, 한슈나이더 등에 배포하게 됐어요. 이번에 발행된 4주년 특별호는 외국 독자층을 더욱 넓히기 위해 영어판도 함께 발간했어요. 최근엔 독자들이 카드뉴스를 선호한다고 해서 SNS에 새로운 방식의 뉴스들도 게재해보려 하고요.



윤찬 : 웨이브 활동을 하면서 북한 관련 이슈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주변에 그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어요. 신문을 나눠주면 친구들도 관심있게 봐주거든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특히 10대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못 느끼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인식변

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구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알고 조금씩 전해져서 파급 효과가 커진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승원 : 보다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싶는데 학생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 문제가 가장 크고, 시험기간이 되면 일단 다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또 통일문제 보다는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고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 진짜 아쉬워요.

준혁 : 확실히 탈북민지원이나 북한인권 활동은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현재 웨이브신문은 우리들이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지인의 후원을 통해 제작되는데, 굳이 후원자를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또 언젠가는 남한 학생들만이 아니라 북한 친구들과도 신문을 같이 만들고 싶은데, 그게 어려운 일이라면 우선 탈북학생들과 함께하면 좋겠어요.

'통일 대박'엔 공감,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위해서도 통일은 꼭 필요

재현 : 일본이 과거 우리민족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현재 일본인 모두가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나쁘다는 편견을 갖기보다는 이산가족의 아픔, 인권유린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통일대박'이란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기쁨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인재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가적으로는 국방비를 아껴 복지에 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분단상황은 정상이 아니잖아요. 원래대로 돌아가야죠.

준혁 : 저도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옛날처럼 '같은 민족이니 통일을 해야 한다'는 접근보다는 통일을 통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발전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말하는 편이 더욱 와 닿을 테니까요. 통일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혜택을 받는 것도 결국 지금의 청소년들의 몫이니 청소년들이야말로 통일 이야기를 많이 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찬 : 토론대회에 나가보면 북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딱딱한 주제로만 접근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저는 북한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 친구들이 안다면 통일의 중요성을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알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 문화적 갈등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한사람들이 북한이 야기를 보다 많이 알게 된다면 통일 후 그런 마찰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승원 : 통일을 위해서는 관심과 참여가 중요해요.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것도 국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동독 사람들이 '그냥 여기 있겠다'고 했다면 아직도 동독은 그대로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렇게 반의반 만이라도 인식을 변화시킨다면 통일은 어렵지 않다고 봐요. 웨이브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7차 노동당대회 전후, 우표로 읽는 '요즘 북한'

'편지 보내'라는 말이 '이메일 보내'라는 말처럼 쓰이는 요즘, 남한에서는 주로 우편물에 '요금후납'이라는 소인을 찍을 뿐, 우표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도 볼 수 있도록 한 NFC(근거리무선통신)우표나 연예인 우표, 나만의 우표 등이 출시되고 있지만 사용률이 저조해 점차 우표수집가들의 애장품이 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신문명 시대에도 북한의 우표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북한에서 편지는 유일한 소통수단이기 때문이다.

북한 전역 주민들이 보는 영향력 있는 매체, 우표

북한의 우표는 우편요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우표가 편지나 소포에 붙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체제를 선전하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 주로 이용돼 왔다. 우편물을 통해 편지나 소포를 주고받는 북한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우표에 새겨진 문구나 내용, 그림 등을 보기 때문에 아직도 우표는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북한의 우표 도안으로는 인물이나 역사, 산업, 문화, 동식물과 자연, 스포츠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돼 왔지만 그중에서도 김 씨 일가와 그 치적을 선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또한 외화벌이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는데, 우표 속 도안들은 외국인들에게 북한주민들이 최고지도자를 경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 2014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신년사를 반영한 우표

신년사 우표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 문명국 건설' 강조



선대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도 우표는 체제선전 수단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발행된 우표들을 보면 '사회주의 강성국가,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는 문구들을 주로 볼 수 있다. 먼저 올해 신년사를 담아 제작된 우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상징하는 태양 그림과 함께 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등 중공업, 핵강대국을 상징하는 미사일을 그려 넣어 신년사 언급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수·축산업을 상징하는 낱알과 물고기, 양 그림을 통해 먹거리 자립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 2016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반영한 우표

글귀를 크게 새겨 넣어 북한주민의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7차 당대회 및 70일 전투 기념우표 속 숨은 뜻

한편 북한은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담은 우표, 백두산 발전소를 배경으로 한 70일 전투 우표, 그리고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 기념우표 등을 발행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을 당대회에서 홍보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70일 전투 우표에는 '총정의 7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되자'는 문구가, 조선로동당 7차 당대회 기념우표에는 '모두 다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승리의 5월을 향하여 총돌격 앞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를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우표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등의 문구를 넣어 7차 당대회를 맞은 북한주민의 총성심을 독려하고 있으며, 왼쪽 아래 붉은색 바탕에는 '5 대교양', '일심단결', '자강력'이라는



▲ 2016년 노동당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발행된 70일 전투 우표(좌)와 제7차 당대회 기념 우표(우)

물론 북한의 모든 우표가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광명성 4호 위성 발사장면을 배경으로 한 기념우표와 평양 속섬 과학기술전당을 담은 우표를 선보였으며, 지난해에는 김홍도의 그림 '대장간', 여자축구 동아시아컵 우승 기념우표 등을 발행하기도 했다.

우표수집가인 미국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표에서 얻은 지식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우표의 순기능이 오히려 북한에선 주민들을 선동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나 좀 달리 생각해보면, 우표가 아직도 정치선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건, 주민통제와 감시를 위한 당국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사진. 연합뉴스〉



‘착하다’고 칭찬했는데 ‘바보’라고 알아들어요!

성인들은 하루 중 절반 가까이를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가족보다 직장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곤 한다. 그래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일상의 행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탈북민들에게도 직장동료들은 중요하다. 이번호에서 만난 진숙(가명, 함흥) 아주머니는 ‘직장을 다니며 남한 생활을 배워야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다’며 남한 사회를 잘 모른다고 주저하지 말고 직업을 먼저 찾을 것을 권했다.

북한 사람 ‘드살이 센’ 건 환경 탓이랍니다!

2000년대 중반 한국에 온 진숙(가명) 아주머니는 경기도에 있는 한 제조공장에 다니고 있다. 오후 4시쯤 일찍 일이 끝나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서너 명의 탈북민 동료들과 가끔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한다. 지금이야 다들 익숙해졌다지만 처음에는 남한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힘든 시기가 있었다.

“북한에선 직장엘 다녀도 크게 힘든 일이 없어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물론 월급이 한 끼 살이 밖에 안 되긴 해요. 돈을 벌려면 비법적(불법적)으로 장사를 하죠. 그런데 남한에선 ‘일한 만큼 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래서 잘 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우린 체력도 약하고 일도 많이 안 해봐서 영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잔업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어찌 시간이 안 가는 지.(웃음)”

1년쯤 지나면 곧잘 적응한다지만, 성격에 따라 그 시기가 조금 늦춰지기도 한다.

“한 언니가 있었는데 드살이 세요. 남한 말로 하면 다혈질이란 뜻이죠. 어느 날 라인에서 불량품이 나와 지적을 받았는데 죽어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북한에선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고, 가만히 있으면 ‘머저리’ 취급을 받으니까 끝까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뒤에서는 회사 욕을 하다가도 막상 사장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남한사람들이 못마땅하기도 했단다.

“북한에선 ‘애로대응대’ 같은 게 있어서 뭐든 마음에 품지 말고 다 말하라고 배웠거든요. 한국에 와보니깐 뒤에서는 의견(불만)들이 많다가도 막상 사장님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입을 딱 닫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서 말하면 나중에 다 돌아오고요. 그 뒤부터는 의견이 있어도 안 나타내고 감정 있어도 나쁜 말은 안 해요.”

그래서 ‘남한사람들은 다 대표쟁이(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숙 아주머니는 “그래도 지내다 보니 인간의 도리 같은 건 여기(남한)가 정확하더라”고 말했다. 다행히 첫 직장 사장님은 실향민 출신이어서 그런지, 동료들에게도 진숙 아주머니를 ‘따뜻하게 대해주라’며 자주 당부하시고 개인적으로 많이 다독여주셔서 직장에 더 빨리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울면서 얘기해요

탈북민과 남한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언어 차이로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진숙 아주머니는 “북한에서 ‘착하다’는 건 말 그대로 착하단 뜻인데 남한에서는 ‘바보’라는 뜻으로 쓰인단 걸 나중에 알았다”고 말한다(물론 남한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착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한 언니가 저에게 잘해주셔서 ‘언니는 정말 착한 사람이예요’라고 하니깐 ‘진숙아, 나 착한 사람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 언니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자긴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하다고 했다’며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 바보라는 말로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고 좋단 뜻이었거든요.”



‘돼지 잡았다’는 표현을 두고 남북한사람들이 다르게 받아들여 한참을 웃은 적도 있다. 진숙 아주머니가 다니는 공장의 행정과 직원이 “오늘 우리 층에서 돼지 많이 잡았어요”라고 말하자 남한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 동료는 “아, 여기는 층내(실내)에서 돼지를 잡는가?”라고 말했던 것.

“우리 공장에서는 매년 돼지저금통에 톰툰 동전을 모았다가 연말이면 깨서 파티를 하거든요. 돼지저금통 깬 것을 돼지 잡았다고 말한 건데 그분은 진짜 살아있는 돼지를 사무실에서 잡은 줄 알고 놀란 거죠. (웃음)”

지금이야 새로 온 탈북민에게 이것저것 가르쳐주는 선배가 됐지만 진숙 아주머니 역시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커피 타는 법을 몰라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커피가 뭔 줄도 모르고 마셔본 적도 없었던 진숙 아주머니는 ‘커피 한 잔 타오라’는 말에 정수기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모른다고 말하기 싫어서 ‘예’라고 하긴 했는데 영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 망설이다가 커피 타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컵에다가 물을 붓고 커피를 넣은 뒤 저으면 된다고 하기에, 물을 가득 부어서 찰랑찰랑하게 갔다 왔더니 난처해하더라고요.”

진숙 아주머니는 그때 커피가 ‘잠도 안 오게 하고 몸에 안 좋은 음료’라고 해서 몇 년간 마시지 않았는데 티타임 때 동료들과 함께 먹어보니깐 피로감도 없어지고 좋은 것 같다고 했다. 그녀는 “가마치(누동지)처럼 탄내가 좀 나고 써서 사탕(설탕)가루를 듬뿍 넣어야 맛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15분 거리를 헤매다 두 시간 늦었어도, 이전 모두 옛일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전 식당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는 진숙 아주머니. 그런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찾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였다. 북한에서는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 10리(약 4km), 20리를 거의 걸어서 다녔는데, 남한에선 교통편이 잘 돼 있어도 이용할 줄 모르니 힘들긴 마찬가지였다. 한번은 약속보다 두 시간이나 늦은 적도 있다고.

“음식점 사장님은 전화해서 15분이면 오는 거리를 왜 못 찾느냐며 답답해하시고, 옆에서 들던 버스운전 기사님은 반대로 탔다며 내려서 어떻게 하라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그땐 반대편에서 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으니까요.”

늦게 식당에 도착하자 일은 잔뜩 밀려있고 사장님은 화가 나 있었다. 일을 마친 후 일당을 세어보니 두 시간만큼의 돈이 비어있었다. ‘늦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진숙 아주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 그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케첩 가져와라’, ‘부르스타(버너) 가져와라’ 지시를 받을 때마다 그게 뭔 줄 몰라 아무거나 후다닥 와서 집어 가곤 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나중엔 사장님도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아셨어요. 나이 지긋한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어느 날 소고기를 많이 싸주시는 거예요. 왜 주느냐고 물어봤더니, 첫날 두 시간 치 월급을 깎은 게 마음에 계속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한편, 진숙 아주머니는 혹시 이 글을 읽는 ‘남한사회 초년생’ 탈북민들이 있다면 도움을 주고 싶다면 에스컬레이터 쉽게 이용하는 법도 알려줬다.

“지하철에 가면 대부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처음에는 계단이 막 움직이니까 언제 발을 디뎌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저도 어떤 언니가 알려줘서 해봤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겁내지 말고 단번에 두 발을 딱 ‘피어서’ 훌쩍 올라타면 쉽더라고요.”

진숙 아주머니는 지금은 이렇게 쉬운 걸 그땐 왜 그리 헤매다녔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의 살던 고향은

북한에서 '함흥간장'은 만능화폐?

진숙 아주머니의 고향인 함흥에는 이성계가 만세를 불렀다는 만세교가 있고, 다리를 건너면 이성계 왕궁을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자랑거리가 많은 함흥이지만, 외국 수반들이 북한을 방문하면 첫 번째로 찾는 코스가 함흥이다 보니 매년 길에 나와 손을 흔들며 환영 행사를 해야 했던 일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비록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지만 북한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 나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함흥간장은 맛이 좋아서 어디가면 '함흥간장 가져왔어?'라고 묻곤 했고, '만능화폐'로 통하다 보니 쌀과 바꿔먹기도 했다. 농업도 잘 발달돼 있고 흥남비료연합기업소가 있어서 비료도 마음껏 쓸 수 있었으며, 흥남항이 있어서 세계 무역선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 함흥이라고.

미전해수육장도 흥남의 자랑거리다. 이 해수육장의 모래알은 굵으면서도 살에 잘 들러붙지 않고, 날이 뜨거울 땐 찜질을 하는 기분이 든다. 또한 모래를 발로 파면 조개가 막 나와서 비닐봉지를 가지고 놀러다니곤 했다고 한다. '함흥냉면'도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신흥관'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는데 오래 줄을 서야 해서 딱 한 번 겨우 들어가 봤단다. 진숙 아주머니는 국수가 가늘고 질겨 '쳐녀총각이 같이 국수를 먹으면 아가씨가 국수발을 따라 온다'는 농담을 소개해주며, 당시 '똥띠 노천'이라고 불리던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서 국수 맛이 별로라는 이야기를 TV에서 들었다고 했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민주평통이 국내외 여론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야”

박근혜 대통령, 해외지역회의에서 통일노력 격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서 평화와 행복의 통일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가는 데 재외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단합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께서 국내외 여론 결집과 한민족 단합을 선도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제17기 해외지역회의(미국지역) 두 번째 날인 17일, 모국을 방문한 미국지역 자문위원 7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통일대화’를 갖고 노고를 치하했다. 그 밖에 3박 4일간 알차게 진행됐던 미국지역 해외지역회의의 행사 현장을 담아봤다.

2일차 - 개막식·업무보고·대통령과의 대화

제17기 해외지역회의, 미국 자문위원 700여명 참여

민주평통은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웨라튼워커힐호텔에서 제17기 해외지역회의(미국지역)를 개최했다. ‘하나 된 통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16일 열린 미국지역 간부위원 회의를 시작으로 17일에는 개회식, 유호열 수석부의장 기조연설, 배정호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주요업무 보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국정보고, 박근혜 대통령 초청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가 진행됐으며 18일에는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문화특강,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국정보고, 배정호 사무처장 진행의 통일 토크콘서트, 분임토의 및 발표 등이 진행됐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내일이라도 통일될 각오로 일하고 있다’는 수잔 솔티 여사의 말을 인용하며 “독일이 통일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불과 1주일 후에 베를린장벽 무너지고 금세 통일을 이뤄냈듯 내일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은 그런 자세가 필요하며, 통일의 길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영화 ‘태양 아래’를 소개하며 “우리가 70년간 이룩한 성과를 허구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과 같이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필요한 통일덕목 7가지로 괴, 강, 끼, 꿈, 끈, 꿀, 곡을 소개하며 “자문위원들의 리더십으로 한국이 통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유호열 수석부의장



▲ 김기철 미주부의장

김기철 미주부의장 개회사를 통해 “해외자문위원들은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도발할 때마다 이를 규탄하는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인과 주류사회가 대한민국의 정책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온 데 대해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개최되는 이번 지역회의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 국민의 관심 속 ‘평화통일 기원제’ 열 것

이어 배정호 사무처장은 ‘17기 민주평통 활동 목표 및 추진방향’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로 인한 국론분열과 국민불안을 해소하고자 ‘국민 속으로 통일준비’를 추진하며, 작은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지난 두바이 청년컨퍼런스에 이어 해외여성위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평화통일 포럼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국내지역회의’를 통해 통일역량을 결집하고, 달빛 통일 한마음 대축제, 통일준비 한마음 청년 통일문화 축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 기원제 등을 추진하며 홍보대사들을 활용해 국민적 관심과 국론결집 효과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2016년 통일분야 추진과제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전방위적 대북 압박을 추진하고, 주변 4개국과 역대 3각협력 등 능동적 동북아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구상을 내실화하고 다자협의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통일지원을 위한 국제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대화

박근혜 대통령, 조국 발전과 평화통일 위한 노력 격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지역 해외자문위원들과 가진 ‘통일대화’에서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을 맞아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고 있는 민주평통 자문위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조국 발전과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을 격려한 뒤, 북한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조치 배경, 대북제재 효과와 전망 등을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이란을 본보기 삼아 핵개발을 중단하고 문호를 개방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의 많은 지원으로 발전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이어서 배창준 휴스턴협의회장, 황우성 보스턴협의회 간사, 홍지영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자문위원이 미국지역 자문위원들을 대표해 정책을 제언했다. 배창준 협의회장은 북한인권 사진전, 북한인권법 서명운동, 대학생 대상 통일에세이 대회, 북핵반대 서명운동 등을 소개하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통일운동을 펼칠 것을 제언했다. 황우성 간사는 프랜시스코 유레나 메사추세츠주 보훈장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 행사를 소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통일 준비의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했다. 홍지영 자문위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들과 2세들이 통일에 힘을 보태고 조국에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배창준 휴스턴협의회장 ▲ 황우성 보스턴협의회 간사 ▲ 홍지영 자문위원

▼ 통일노래 공연

3일차 - 강연·분임토의 및 결과발표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시대 준비' 국정보고

행사 두 번째 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시대 준비'라는 국정보고 연설을 통해 현 남북관계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통일정책 추진 현황,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들을 소개한 뒤 통일비전 확산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홍용표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지속해왔고, 지속하고 있고 지속할 정책"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대화가 필요할 때는 적극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 도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국제 제재를 만들어내는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유럽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독일처럼 한국도 통일을 통해 세계 중심국가, 웅비하는 호랑이가 되자"고 역설했다.



▲ 홍용표 통일부장관



▲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이사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이사는 '세계와 함께 즐기는 우리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재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가수들을 소개하며 향후 국가별 NCT 그룹을 만들어 K-pop 한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에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류타운 '신 오구보'가 생겨났듯, 한류를 통해 세계인도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고, 헐리웃처럼 다방면의 셀러브리티들이 모여드는 좋은 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해 자문위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탈북민 출신 전문가 패널의 통일토크 '호평'

배경호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통일토크는 탈북민 출신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인수 박사가 패널로 참가해 해외자문위원들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북한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만들어 줘 큰 호응을 얻었다. 할아버지의 소신 발언으로 요덕수 용소에서 10년간 수용됐다가 탈북해서 인권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강철환 대표는 "북한 경계가 살아나려면 과감하게 중국식 개혁개방을 해야 하고 주민 스스로 통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을 바꾸려면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내야 한다"며 "해외자문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북한문제 풀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80, 90년대 대남공작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곽인수 박사는 “남한에 와서야 북한 체제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며, “현재 북한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일과 북한 주민의 생활 간 괴리, 빈부격차와 물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민심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북한 내부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곽인수 박사 역시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주민 의식화해서 그들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며 “외부에서 정보를 들여보내고 북한 내부에서도 노력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통일 달성 기반 조성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한미관계 현황과 전망’ 강연에서 안보와 경제영역, 지구적 이슈영역, 사회문화 및 인적 유대 등을 한미동맹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한미간 이슈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북핵문제라며, 강력한 제재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고 단합된 국제공조를 펼쳐나가기 위해 긴밀한 한미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대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고립주의화, 대외 불개입 선호 경서는 곤란하다며,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대미 설득노력을 개발해 한미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열띤 참여와 경청 속에 진행된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분임토의를 제외한 모든 공식 프로그램이 끝난 뒤 해외지역 자문위원들은 협의회별로 모여 17기 활동 계획 등에 대한 토의를 실시했다. 분임토의에서는 오랜 시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원로자문위원들과 청년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분임토의 발표 시간에는 기존 활동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해 눈길을 사로잡은 워싱턴협의회를 시작으로 15개 협의회의 발표가 이어졌다. 다음은 각 협의회별 발표 내용 요약.

- △ 워싱턴협의회 = 미 국회 코리안 코커스 의원 및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추진하고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통일 포럼, 한미 통일문화한마당 등을 개최
- △ 뉴욕협의회 = 유튜브 통일영상공모전과 평화통일기원 다민족 민속씨름대회, 통일콘서트, 외교관 및 참전 용사 초청 통일안보 홍보행사 추진 등
- △ 필라델피아협의회 = 차세대 통일리더 교육을 위해 참여와 체험을 강조한 교육장소 조성, 각종 문화체험행사, 통일리더십스쿨 개발, 차세대들의 주류사회 진출 펀드사업 등
- △ 보스턴협의회 = 한국의 평화통일 의지를 영어세대와 현지인에게 알리기 위해 통일안보 강연회, 통일문화공연, 한국전 참전 보은행사 개최
- △ 로스앤젤레스협의회 = 친한파 의원들과의 민관교류 및 지원을 통한 유대 강화, Ed Royce 의원 통일세미나 개최, 차세대 육성, 통일염원비 및 망향대 건립 추진 등





- △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역사교육과 통일공감대 형성을 위해 통일비전 발표대회, 통일플래시몹, 통일사업기금마련 콘서트 개최, 청소년 멘토링 실시
- △ 휴스턴협의회 = 6.25기념을 통한 주류사회와의 연결 및 차세대 교육에 역점. 대규모 참전용사 보은행사 개최, 찾아가는 교육 및 통일강연 실시 등
- △ 달라스협의회 =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대학내 북한인권 동아리 활동 지원, 조지 W. 부시 대통령센터의 북한인권프로그램 지원, 통일강연회 개최 등
- △ 애틀랜타협의회 = 차세대와 주류사회 학생대상 북한인권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알리고 한국문화도 함께 홍보
- △ 마이애미협의회 = 차세대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 도모, 모든 세대가 원-원하는 한인문화 정착, 2030대 젊은 차세대 리더들의 리크루팅 및 네트워킹 확립 등
- △ 하와이협의회 =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 역사 및 한반도 통일 교육, 교육자료 개발 등을 추진. 국토대장군과 통일 스피커스 부로 등을 추진 및 논의할 계획
- △ 샌프란시스코협의회 = 통일기원 한마음걷기대회, 대학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한 통일 및 북한인권 강연회, 북한에 USB 보내기 사업 실시 등



- △ 덴버협의회 = 미국 정치인과 외교전문가의 대북강연회, 북미주지역 입양아재단 관련 행사, 자문위원 역량강화 및 친목행사 등
- △ 시애틀협의회 = 통일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미 차세대지도자 포럼, 한미여성 지도자 포럼 개최, 탈북유학생 지원사업 추진 등
- △ 시카고협의회 = 재미 이산가족들이 한미 양국의 공식 채널을 통해 상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네트워크를 활용

한편, 해외지역회의 첫날인 5월 16일(월)에는 간부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지역 간부회의'를 열어 해외지역회의의 운영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어진 환영만찬 시간에는 테너 김진과 바리톤 김동규, 소프라노 강민성 등 성악가들의 통일노래 축하공연을 감상했다. 또한 마지막 날인 19일(목)에는 경기도 연천군 소재의 승전 전망대 등을 걸으면서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는 통일·안보현장 시찰에 참가했다.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참가소감_ “통일은 한민족이 업그레이드되는 최고 업적”

한근우(필라델피아협의회 부회장) = 오래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지친 기색도 없이 통일을 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어요.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4개국, 특히 미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동포들의 역할이 클 거라고 봐요. 통일은 한민족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근우



◀ 김현주

김현주(보스턴협의회 부간사) = 한국에 올 때마다 많은 길 배우고 위원님들의 열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번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행사 진행이 매끄러웠고 청중들로부터 사전에 질문을 받아 진행한 통일토크도 인터랙티브해서 좋았어요. 한국인의 통일 의지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외에서도 많이 서포트하고



박정빈 ▶



국내에서도 더 노력하면 통일이 앞당겨질 것 같아요.

박정빈(워싱턴협의회 자문위원) =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북미관계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저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동북공정'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졸업하면 워싱턴 의회에 들어가 주류사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어요.

최석기(애틀란타협의회 자문위원) =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애틀란타협의회는 단체 플로티를 맞춰 입고 왔어요. 동포사회에서 통일의를 고취하는데 있어 해외지역협의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돌아가면 각자 맡은 위치에서 통일공감대를 조성하고 주류사회의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다 함께 다짐했습니다.



애틀란타협의회 자문위원들



“미국 한인 1세대와 2세대를 이어주는 건 바로 통일”

이번 해외지역회의는 현재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한 강연들을 비롯해 탈북전문가 패널과 함께하는 통일콘서트, 통일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면서 해외자문위원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통일을 위해 해외자문위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국이 무엇을 원하는 지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하는 해외자문위원들. 이미 한인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1세대들은 차세대들에게 ‘통일멘토’가 되어주고, 2세대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미국사회에 통일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하는 해외자문위원들을 만났다.

플로리다주 첫 한인 하원의원 꿈꿔, 통일에 기여할래요!

스티브 서(마이애미협의회장, 변호사)



‘네가 한국인이란 걸 잊지 마. 난 항상 한국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 해야 해.’

스티브 서 협의회장은 아홉 살 때 플로리다로 이민을 왔지만, 부모님은 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랐다. 이주민 전문 변호사인 서 협의회장은 7년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미국지역에서는 가장 젊은 나이에 17기 협의회장이 됐다.

마이애미협의회는 39명의 자문위원들로 구성, 차세대 육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주류사회에 한반도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스티브 서 회장은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끔 ‘꿈수’를 쓰기도 한다고 말한다. “사실 차세대들은 통일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프로페셔널 통일 컨퍼런스’를 할 때 ‘통일’이라는 말을 살짝 빼요. 선입견을 가지면 참여율이 떨어지니까요. 차세대들에게는 ‘전문가를 초빙해 함께 네트워킹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모임’이라고 홍보한 뒤에 자연스럽게 통일 이야기를 꺼내요. 실제로 폭스뉴스의 유일한 한인 해설자를 연사로 초청하는 등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통일강의를 진행했더니 차세대들도 통일 문제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주니어 (통일) 컨퍼런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더니 참여율이나 호응도가 매우 높았어요.”





스티브 서 협의회장은 '통일'이 1세대와 2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장기 대부분을 미국에서 보낸 그는 세대 간 갈등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솔직히 1세대와 2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별로 없어요. 1세대는 한국식, 2세대는 미국식 가치를 추구하니까요. 하지만 통일을 주제로 하면 이야기가 돼요. 물론 2세대는 인권 때문에, 1세대는 이산가족이나 외교안보적 이슈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등 그 이유는 다르지만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거든요. 이처럼 통일이 1~2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브 서 회장은 2018년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 미국 플로리다주 첫 하원의원에 도전해 성공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치가가 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은 건 1948년 이스라엘을 되찾았을 때예요. 현재 연방 상원의원이 20명이고 연방 하원의원이 19명이나 되죠. 반면, 제가 사는 지역은 한인 이민 역사 113년간 단 한 번도 한국인이 상·하원의원에 당선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통일이 되면 한인동포 사회도 그 힘을 받아서 미국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고 봐요. 한국인들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유튜브 공모전 실시, 차세대 눈높이 통일교재로 사용할 것

정용일(뉴욕협의회 간사, 변호사)



2000년도에 유학차 미국에 갔다가 정착하여 현재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정용일 뉴욕협의회 간사. 14기부터 활동을 시작, '이번이 네 번째 해외지역회의 참석'이라는 정용일 간사는 행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놀랐다고 말한다. 조국을 떠난 지 오래됐는데 강한 애국심을 갖고 통일과 한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해외지역회의에서는 평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런 대규모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조국이 우리 해외동포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국을 자랑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많이 알려야겠다는 의무감, 사명감이 더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뉴욕협의회는 현재 17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대부분 해외지역협의회가 그러하듯이 뉴욕협의회 역시 포커스는 차세대, 다음 세대로의 전환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청년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유튜브 공모전이다. '내가 생각하는 통일'을 주제로 UCC 제작물을 응모하도록 한 것으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결과물들을 취합해 통일 교육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기존 교재들로 통일에 대해 가르치면 큰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한 뒤에 UCC를 만들어보라고 했죠. 동영상을 만들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 시각으로 남과 북 통일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다시 교육에 활용하고요."

정용일 간사는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는 미일중력라는 4대 강대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해외자문위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주 국가에서 외교관보다 섬세한 접근을 통해 이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해외자문위원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문위원들 역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만큼, 이처럼 정부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외자문위원들을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때 자문위원들 또한 제 역할을 잘 해내서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WHAT IS UNIFICATION?
WHY WORLD NEEDS UNIFICATION?

차세대 YOUTUBE 통일동영상 공모전

1. 목적
 * 우리 차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 해외동포가 생각하는 통일이란? WHY WORLD NEEDS UNIFICATION?
 * 공모기간 : 2월 1일 ~ 3월 15일 2018
 * 접수지역 : K-12 (Middle SCHOOL), College & up (UNIVERSITY)
 * 접수방법 : 유튜브 동영상 제작을 위한 YOUTUBE FORMAT 동영상 제출 (길이 2분 이내)
 * 제출방법 : nyyujung@gmail.com
 * 시상내역 : 1등 : 100,000원, 2등 : 50,000원, 3등 : 30,000원, 4등 : 20,000원, 5등 : 10,000원
 * 주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2. 지원대상
 * K-12 (UNIVERSITY)
 * Mac Book
 * PC
 * iPad Mini

*** 대회제출금 (UNIVERSITY)**
 * 1등 : 500,000
 * 2등 : 300,000
 * 3등 : 200,000

*** 시상내역** : Stephan Sun | (561) 996-8214, Yonggi Jung (347) 572-4164, Daniel Song (917) 7821-3310
 * 2018년 3월 15일 12:00 까지 접수
 * 수상작 발표는 3월 20일 12:00 이후
 * 수상작 발표는 3월 20일 12:00 이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of New York



교육은 통일을 위한 백년지대계, 차세대 역사교육 중요

김민제(시애틀협의회 포틀랜드 지회장, 연방정부 동력부 Sr. Eng. Manager)



김민제 포틀랜드 지회장은 현재 미연방정부 에너지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5기와 11~14기 그리고 17기 등 11년 넘게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지냈다. 김민제 지회장은 6년 전에 왔을 때보다 올해 해외지역회의가 더 체계적으로 완성된 것 같고, 자문위원들과 한국 정부 간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20대에 한국에서 공무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보니 '대통령과의 통일대화'에 대한 감회가 남달랐다고 한다.

포틀랜드지회는 총 19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령대의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17기에는 주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을, 세계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교육을 기본으로 해서 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하고, 그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지회 자문위원들은 비용을 각출해 교사들을 초청하고 별도의 강의시간을 만들어 150여 명의 학생들을 3개월간 교육시켰다. "학생들에게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인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도 으뜸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죠."

포틀랜드 지회는 크게 여성과 차세대에 맞춘 컨퍼런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업 모두 젊은 여성자문위원들이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중에서도 여성컨퍼런스를 강조하는 이유는 '엄마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야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란다'는 신념 때문이다. "젊은 엄마들이 변해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 젊은 여성을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나라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길인 거죠. 통일이든 정치든 다 사람이 하는 일인 거니까요."

김민제 지회장은 앞으로 임기동안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문가 초청강연을 자주 열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만들고 함께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다.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행사를 하면 주류사회 정치인들이 항상 서포터로 참가하곤 한다며, 그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행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 통해서 통일 메시지 전달하고 싶어요

박정인(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 치과의사)



박정인 자문위원은 샌버나디노에서 치과의사로 일하며 클래식 피아노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재원이다. 사실 그 전만 해도 '통일은 돼야 한다'고 막연히 생각만 해왔는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제가 일찍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통일이나 한국 역사에 대해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줄 수 없었는데, 이번 해외지역회의 프로그램이 알차서 북한과 통일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국내외에 2만 명의 자문위원들이 계시다고 듣긴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울러 이민 1세대에 대해 갖고 있던 선입견이 사라지고 진짜 조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박정인 자문위원은 그중에서도 토크콘서트를 인상 깊게 봤다고 한다. 탈북민들을 만나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토크콘서트 통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나니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개인적으로는 음악프로그램인 콘서트를 최고로 꼽았다.

"저는 '문화의 힘'을 믿거든요. 크로스오버 팜페라같은 통일음악공연을 감상하는 건 강의를 몇 시간 듣는 것보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는 현재 14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17기에는 차세대들이 많이 영입돼 그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차세대분과에서는 차세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며 특히 청년 네트워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전문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1세대 자문위원들이 유학생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면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박정인 자문위원은 "1세대는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였지만 지금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통일을 돌파구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통일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피아노를 전공하는 만큼 박정인 자문위원은 예술 혹은 문화라는 매개체로 통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한류의 파급력이 대단하잖아요. 주변에 아시아계나 흑인들도 많은데 오히려 저보다 그들이 케이팝을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특히 10~20대는 확실히 한류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과도 문화 교류가 활발한데,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과도 문화로 연결되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의미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주민들도 한류를 같이 느끼고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글.기자희 / 사진.신영민>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진 민주평통 '평화통일음악회'

민주평통, 통일부 · 통준위와 함께 '통일박람회 2016' 개최



▲ 소프라노 강민성



▲ 탈북가수 김정원



성악 앙상블 벨트라움 ▶

민주평통은 지난 5월 28일(토) 오후 7시 광화문광장 메인 무대에서 통일박람회의 일환으로 '평화통일음악회'를 열었다. 김희영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음악회에서는 소프라노 강민성과 성악 앙상블 벨트라움, 탈북가수 김정원, 바리톤 김진추 등이 △불어라 통일의 바람아 △가슴으로 부르는 통일노래 △코리안 드림 등 통일노래를 시민들에게 선사했으며, △그리운 금강산이나 △희망의 나라로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가곡들을 공연함으로써 관객 몰입도를 높였다. 댄스그룹 레드스톤은 전통가락에서부터 강렬한 비트음악까지 다양한 군무를 역동적으로 선보이다가 '평화통일과 위대한 선전강국 건설'이라는 대형 현수막을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본 공연이 끝난 뒤에는 역사어린이합창단이 '달려라 통일열차' 등의 통일노래를 합창했고 끝으로 유호열 수석부의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

관,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이 각각 인사말을 한 뒤 합창단 및 관객들과 '우리의 소원'을 같이 부르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한편, 민주평통이 통일부·통준위와 공동 주최한 '통일박람회 2016'는 '그래서 통일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중앙부처·공공·언론·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 141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됐다.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전달하며, 통일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월27(금)~29(일) 2박 3일 동안 남녀노소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축제로 치러졌다.

'함께 하는 통일'을 주제로 광화문 북측·잔디광장에 마련된 전시부스에서는 다양한 통일기관 및 단체들이 참가해 시민들을 만났고, 광화문 중앙광장에서는 '남북음식문화특별전'이 열렸으며, 세종로 공원 '통일상상놀이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박람회 개막식은 27일 오후 10시에 '통일의 꽃을 피우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폐막식은 29일 오후 5시 반에 '통일의 바람을 띄우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 문화페스티벌' 열어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톡협의회(회장 이경중)는 연해주한인회와 함께 5월 26일(목) 언더그라운드극장에서 '한·러 문화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문화교류를 통해 한·러 우호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현지교민과 고려인, 러시아인, 조선족 등 600여 명이 참여해 △통일노래 콘서트 △우리 전통무용공연 △한복 패션쇼 △한국음식 체험 등을 즐겼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격려사에서 "1990년 한·러 수교 이후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며, "최근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는 등 동북아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 개발은 극동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 현실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민주평통 의료봉사단, 용산·금천구 탈북민 무료 검진 실시



민주평통 의료봉사단(단장 김철수)은 5월 19일(목) 서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2016년도 제3차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서울 용산구 및 금천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무료검진 봉사에서는 임상병리검사, X선 검사에 이어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 등 다양한 진료가 이뤄졌으며, 검진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 탈북민들은 채혈 및 간기능검사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진과 진료를 마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미리 준비한 의료구급함과 비누세트, 남산케이볼가 왕복탑승권 등 선물도 전달했다.

경기 용인시협의회, '탈북청소년 멘토 아카데미' 개최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5월 10일(화)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멘토 자문위원 1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탈북청소년 멘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이들을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열린 이번 멘토 아카데미는,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직접 탈북청소년들과 결연을 이뤄 생활 및 학습지원, 진로 고충상담, 봉사활동, 문화체험 등을 함께 하면서 탈북청소년을 맞춤형으로 멘토링하는데 필요한 사전 교육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배정호 사무처장이 '한반도 통일과 우리의 통일준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으며, 탈북청소년의 이해 및 멘토링 토크콘서트, 멘토링 전문가 강의, 멘토-탈북청소년과의 통일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서울지역회의 청소년 통일골든벨 예선대회 개최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5월 19일(목)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 아레나홀에서 관내 고등학생, 교사 및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예선을 치렀다. 본선 진출자 선발을 위한 OX 퀴즈와 선생님 찬스를 이용한 패자부활전, 파이널 본선 등을 통해 총 9명의 학생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대회 중간 성악가 김진·강민성 씨의 공연이 진행됐다. 대회 결과, 통일상은 유용식(경성고) 학생이, 평화상은 김민우·정동균(강서고), 장다예·이효규(상암고) 학생이, 민주상은 박건호·김태민(양정고), 김홍조(강일고), 최연주(명지고)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4차례에 걸쳐 진행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숙)는 5월 24일(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서울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 4차 강의를 실시했다. 서울지역 여성자문위원 8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여성 자문위원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통일을 선도하는 여성리더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배경호 사무처장이 ‘새로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으며, 분임토론과 결과 발표 및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앞서 여성 통일리더 아카데미는 3일과 10일, 17일 각각 1~3차 강의를 개최한 바 있다.

여성의 힘! 통일을 그리다! ‘여성 통일공감 특투유’ 진행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남궁금순)는 5월 20일(금) 해누리센타 아트홀에서 자문위원과 지역 여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통일공감 특투유' 행사를 개최했다. 여성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통일문제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식전행사로 북한음식 알아보기 및 시식 시간을 가졌고, 본 행사인 '특투유'에서는 남궁금순 위원장의 진행으로 여성패널들과 함께 통일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2014~2015년 어깨동무하기 멘토링에 참여했던 5명의 중학생들에게 통일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통일시대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등



▲ 전남 고흥군협의회



▼ 부산지역회의

전남 고흥군협의회(회장 김정설)는 4월 19일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기관단체장, 군민 등과 함께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으며,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숙)는 21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2016 부산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 서울 은평구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 서울 금천구협의회

서울 은평구협의회(회장 전주대)는 22일 은평 평화통일포럼과 함께 강화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졌으며,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이날 평화와 공존을 위한 첫걸음 '북한 인권 지도자과정' 제1강을 실시했다.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22일과 29일 2회에 걸쳐 주부대학 학생 등을 상대로 '2016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을 열었다.



▼ 서울 서초구협의회





▲ 서울 강남구협의회



▲ 경기 오산시협의회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는 22~23일 이틀에 걸쳐 강원도 영월군에서 '평화통일강연회'를 열었으며 서울 서초구협의회(회장 하만장)는 25일 '1일 학습형 과정'으로 6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서울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경기 오산시협의회(회장 백대현)는 26일 오산시장, 국회의원 및 시민 등과 함께 '통일공감강연회'를 열었다.

▼ 강원 태백시협의회



▲ 충남지역회의

강원 태백시협의회(회장 신원철)는 28일 영동지역 9개 시군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2016년 강원지역 자문위원연수를 실시했으며, 충남지역회의(부위원장 김병목)는 29일 '2016 세종충남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 서울 양천구협의회



▼ 인천지역회의



▼ 경남 남해군협의회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하)는 5월 4일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등 서울 7개 협의회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2016 서울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실시했고, 인천지역회의(부위원장 허희숙)는 포럼회원들과 함께 '제25차 인천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으며, 경남 남해군협의회(회장 최홍백)도 이날 '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 충남 당진시협의회



▲ 대구 북구협의회&전북 순창군협의회

충남 당진시협의회(회장 윤수일)는 9일 대행기관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 유관 단체 및 포럼회원, 탈북민 등과 함께 시청에서 '2016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다음날 대구 북구협의회(회장 이광우)와 전북 순창군협의회(회장 김성수)는 '대구북구-순창군 자매협의회 합동세미나'를 열었다.



▲ 강원 흥천군협의회



▲ 제주지역회의&강원지역회의



▲ 충북지역회의

강원 흥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0일 읍사무소에서 통일리더 양성을 위한 흥천통일대학 7~8강 및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앞서 5월 3일에는 5~6강을, 4월 26일에는 3~4강 교육을 각각 실시했다.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는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와 함께 11일 '2016 제주-강원 합동 평화통일포럼'을 열었으며 충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길)도 12일 '제30차 충북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 경기 안산시협의회



◀ 경북 봉화군협의회

▼ 경북지역회의



경기 안산시협의회(회장 유오복)는 16일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청년세대와 함께하는 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고, 경북 봉화군협의회(회장 김희문)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미)는 지역사회 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상화)도 이날 대구대학교에서 시·군협의회 협의회장 및 간사, 포럼회원, 대학생 등과 함께 '2016년 상반기 경북평화통일포럼(제26차)'을 열었다.



▲ 충남 논산시협의회



▼ 경남 창원시협의회



▲ 인천 부평구협의회

충남 논산시협의회(회장 송덕빈)는 4월 23일 건양대, 건양고 학생으로 구성된 통일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통일동아리 발대식 및 평화사랑 1일 호국체합' 행사를 가졌으며, 경남 창원시협의회(회장 김길화)는 26일 대행기관장과 최충경 경남부지사를 비롯한 주요인사, 유관기관 단체장 및 사회단체장, 학부모, 교사 등을 초청해 '제2기 민주평화통일자민회의 유소년 통일단 입단식'을 열었다. 인천 부평구협의회(회장 손광천)는 27일 부평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 경찰서관계자, 보안협력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플라워 교실'을 개



최했으며, 경기지역회의(부의장 박해진)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28일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행복대학 입학식'을 열었다.



▲ 경기지역회의

▼ 경북 청송군협의회



▲ 경남 밀양시협의회 강원지역회의 ▶

경북 청송군협의회(회장 김양태)는 5월 2~3일 청송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일지도교사 통일현장체험'을 개최했고, 경남 밀양시협의회(회장 윤정일)는 3~4일 강원도 철원을 탐방하는 '2016년 청소년 통일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 청년위원회(위원장 전제원)는 4일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대학생 청년위원들과 함께 '강원지역 대학생 통일문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 경북 군위군협의회



▲ 경북 김천시협의회



▲ 경기 김포시협의회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어린이날을 맞아 2016년 어린이날 큰잔치 '통일이 되면' 사생대회를 5일 군위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했고,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는 9일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필기시험)'를 치렀으며, 경기 김포시협의회(회장 최선희)도 이날 양곡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생 1일 통일교실'을 열었다.



▲ 전남 목포시협의회



▲ 전남 완도군협의회



▲ 전남 무안군협의회

전남 목포시협의회(회장 우승하)는 10일 목포해인여고에서 '고등학교 통일 골든벨 예선대회'를 열었으며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1일 신천고등학교에서, 전남 완도군협의회(회장 최번부)는 완도고등학교에서,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은 무안 백제고등학교에서 각각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개최했다.





▲ 부산 서구협의회



경기 의정부협의회 ▶

11일 부산 서구협의회(회장 류채형)는 경남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공감 강연회'를 열었고, 경기 의정부협의회(회장 김점순)와 의정부 청년회의소는 14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제36회 의정부시 어린이 미술대회'를 공동주관했다.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



▼ 부산 금정구협의회

경기 의왕시협의회 ▶



부산 부산진구협의회(회장 백옥자)는 16일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부산 금정구협의회(회장 김재두)는 20일 금정여자고등학교에서 각각 '2016년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열었으며, 경기 의왕시협의회(회장 이필정)는 21일 의왕시청에서 관내 2개 고등학교(의왕고, 우성고) 학생들과 함께 '2016년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예선대회'를 치렀다.

▼ 경기 가평군협의회

경기 여주시협의회 ▶



경기 가평군협의회(회장 이병재)는 18일 청평중 3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방문해 '2016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 행사를 열었으며 경기 여주시협의회(회장 임영현)는 다음날 강원도 철원 일대로 여강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제주 서귀포시협의회



▲ 충북 옥천군협의회



▼ 광주 남구협의회

제주 서귀포시협의회(회장 이경용)는 23일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 하나센터 및 경찰서관계자 등을 초청해 '하나가족(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를 개최했고, 충북 옥천군협의회(회장 곽군상)도 같은 날 관내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운영위원 및 경찰서 관계자 등과 함께 백제 유적지를 탐방했으며, 광주 남구협의회(회장 서병연)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이송례)는 25일 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시민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열었다.

▼ 전남 해남군협의회

부산 사상구협의회 ▶





▲ 경기 과천시협의회

전남 해남군협의회(회장 명채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돕고 내 고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26일 전남 화순 운주사와 고인돌유적지(세계문화유산)를 탐방했고,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5월 1일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한마음 문화탐방'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신기중)는 7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작년부터 후원해오고 있는 안산시 소재 탈북아동 생활공동체를 방문했다.



▲ 서울 노원구협의회



▼ 경북 영주시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 경북 경주시협의회



서울 노원구협의회(회장 신해두)는 12일 관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을 실시했다. '통일준비 첫걸음! 함께 걷자 애들아'를 슬로건을 내건 이번 사업은 7월 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 영주시협의회(회장 경주현)는 15일 철의삼각전적지,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영주시평화통일포럼회원들과 함께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는 17일 북한이탈주민, 경찰서 보안협력위원 및 대형기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희망농장' 농작물 식재 행사를 개최했으며, 같은 날 경북 경주시협의회(회장 이복규)는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파주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생활민원 좌담회도 함께 가졌다.

통일문화 확산



▼ 충남 예산군협의회
- 탐거의



▼ 충북 보은군협의회



▲ 서울 동작구협의회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4월 16일 지역의 가족사랑 걷기대회와 연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충북 보은군협의회(회장 이남수)는 17~20일 3박 4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2016년 자문위원 통일현장 체험'을 다녀왔으며, 서울 동작구협의회(회장 최성배)는 21일 강원도 철원 DMZ로 통일안보견학을 다녀왔다.



▲ 충남 계룡시협회의



▼ 충북 충주시협회의

9회 평화통일염원 시민한마음대회 및 걷기대회
2016. 4. 23(토) 10시 장소: 충주역역은 북포럼2차 연회장 주최: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후원: 충주시,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 경북 칠곡군협회의

충남 계룡시협회의(회장 김원태)는 22일 식당산에서 '2016년 자문위원 통일염원 등반대회'를 개최했고, 충북 충주시협회의(회장 석종호)는 23일 '평화통일염원 시민한마음대회'를 열었으며, 경북 칠곡군협회의(회장 이수현)는 27~29일 4.3평화기념관과 전쟁역사평화박물관을 방문하는 등 제주탐라역사문화체험기행을 통해 한민족 통일염원을 되새겼다.



▲ 대전 중구협회의



▲ 대구 수성구협회의



▼ 전남 구례군협회의

대전 중구협회의(회장 한재득)는 4월 30일 가족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으며, 대구 수성구협회의(회장 신철범)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한 뒤 중국 상해협회의(회장 이상철)와의 교류 시간을 가졌다. 전남 구례군협회의(회장 이종석)는 5월 1~3일 '2016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보며, 국론결집을 통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 부산 남구협회의



▲ 강원 횡성군협회의

부산 남구협회의(회장 박동천)는 4일 국립산청 호국원을 참배하고 호국전시실을 관람하는 등 산청일원에서 '제17기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강원 횡성군협회의(회장 조원용)는 5~6일 '제9회 평생학습축제 - 제94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해 '미래 통일 세대를 위한 평생 안보 교육 홍보 및 서바이벌 사격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 서울 송파구협회의



◀ 전남 함평군협회의



▼ 전북 부안군협회의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종윤)는 7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기지를 찾아 해군역사를 배우고 독도함을 견학한 후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하는 등 안보견학을 실시했으며,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윤영수)는 8일 엑스포공원 중앙광장을 가득 메운 군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평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전북 부안군협의회(회장 이영식)도 같은 날 마실축제 행사장 내에서 통일염원 통일 나무열매달기, '평화통일염원 어울마당' 행사를 열었다.



▲ 인천 서구협의회



▼ 강원 홍천군협의회 충남 천안시협의회 ▶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는 11일 청와대, 제3땅굴, 도라전망대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현장견학'을 다녀왔으며, 강원 홍천군협의회(회장 양태호)는 12일 홍천무궁화 공원에서 대형기관장과 군의회 의장, 경찰 및 소방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과 함께 '2016 평화통일 및 군민안녕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11~14일 충남평화통일포럼회원들과 함께 '울릉도, 독도 안보 견학'을 다녀왔다.

지역 봉사활동



▲ 대구 달서구협의회



▲ 전남 영광군협의회



▼ 경남 함양군협의회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는 4월 30일 '달서 효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지역 요양시설 어르신께 드릴 종이카네이션 바구니 및 천연 입욕제 등을 만들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권재국)는 이날 장암산 철쭉꽃등반대회장에서 '통일염원 및 우리 지역 명산지킴이 캠페인'을 펼쳤다.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서정숙)는 5월 3일 다문화, 다자녀, 장애우, 모범가정 등을 대상으로 '가족 사진찍어 주기' 행사를 열었다.



▲ 대전 동구협의회



▲ 서울 중랑구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대전 동구협의회(회장 남진근)는 4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 관내 탈북어르신들을 초청해 선물과 카네이션을 전달했으며,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7일 65세 이상 탈북 멘티어르신 집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했다.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9일 황금연휴 동안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간 속초해변 일대에서 평화 활동을 펼쳤다.

해외 지역 통일활동



캐나다 토론토협의회(회장 최진학) 몬트리얼지회(지회장 이진용)는 4월 16일 동부지역 3개 한인회(노바스코샤, 몽턴, 세인트 존)와 함께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도전 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캐나다 동부지역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통일의를 심어주기 위한 이번 행사에는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 마이클 맥도널드 상원의원, 다이애나 웰렌 주 법무부 장관 겸 검찰총장, 허진 몬트리올 총영사겸 ICAO 대사,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음악공연과 사물놀이 무대에 이어 80여 명의 학생들이 4시간 동안 골든벨 퀴즈에 참여했으며 대회 결과, 최종 도전골든벨의 영광은 손상훈 학생에게 돌아갔다. 한편 몬트리얼지회는 이날 '어린이 태극기 그리기 대회'를 함께 진행했으며, 행사 전부터 '나에게 통일이란'을 주제로 짧은 글짓기를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아 시상식도 가졌다.



중국 베이징협의회(회장 정재화)는 3월 16일부터 4월 9일까지 북경한국국제학교(베이징협의회 주관)와 천진한국국제학교(천진지회 주관)에서 평화통일기원 백일장을 개최했다. 차세대 학생들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백일장에서는 북경, 천진 한국국제학교 초중고 학생 약 1,200명이 한글 글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에 참가했다. 최종결선은 천진의 경우 4월 1일에, 북경은 9일에 실시했으며,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과 대상 등 총 59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항공권을 제공했다.

중국 칭다오협의회(회장 이영남)는 5월 14일 관내 거주 한국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고취하고자 '한반도 통일 희망 영상 및 K-pop 멀티 미디어(UCC) 제작 발표 선발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예선심사를 거쳐 올라온 11팀의 참가자들이 직접 작품 제작 취지를 관객에게 발표했고, 심사위원들은 영상을 관람하며 평가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시나리오 제작과 촬영 및 편집을 함께하는 동안 분단과 통일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개최된 '중국지역 여성 컨퍼런스' 참가자들도 대회를 참관하며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관점, 표현법 등을 직접 보고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 광저우협의회(회장 허남세)는 어버이날인 8일 광저우한국학



교에서 제5회 통일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황순택 광주저우총영사를 비롯해, 기관 및 지역 단체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동성 광저우, 선전, 동관, 중산, 혜주 등 11개 한국(한글)학교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통일골든벨은 작년과 달리 기출문제를 미리 공개했고, 각 지역 학교에서 예선전을 걸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 뒤 치러진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열띤 경합을 벌였으며, 대회 결과 대상은 SHEKOU INTERNATIONAL SCHOOL 10학년 이지은 학생이 차지했다.



오렌지·샌디에고 협의회(회장 권석대)는 23일 풀러턴 은혜한인교회에서 '2016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오렌지·샌디에고 지역을 비롯한 남가주 지역 한인 중고생들은 이날 개인 및 단체전에 참가해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국 역사, 미주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문제들을 놓고 실력을 겨뤘다. 올해 신설된 단체전에는 3인 1개 팀으로 총 10개 팀이 참가했으며 샌디에고팀(베델한국학교 손아영·손준호·황예원)이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어바인 우드브리지고 10학년 백혜진 양이 영예의 통일상을 차지했으며, 지난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어바인 노스우드고교 9학년 이종현 군은 평화상을 수상했다. 한편 이날 골든벨 퀴즈대회가 시작되기 전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이 통일강연을 실시했으며, 동부한국학교 K-POP팀의 특별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신기루처럼 뿌영게 가라앉은 창밖 풍경을 바라볼 때면 이름 한 줄 남기고 사라져간 수많은 것들처럼 이 계절 역시 '멸종'될 것만 같았다. 또각또각 냉정한 얼굴로 제 갈 길을 가는 시곗바늘이 없었다면 도통 하루의 어디쯤 서있는 것인지 조차 가늠조차 어려웠던 날, 부러 깊고 험해 이름조차 생소한 두메마을로 발길을 옮긴다. 그곳에서 만난, 마침내 이 계절. 이젠 이 땅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청명한 날들이 옹기종기 머물러있던 강원도 화천의 초여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길고 느린 숨쉬기를 위한 여행연습

강원도에서도 두메산골로 손꼽히는 비수구미는 깊은 산 층턱에 자리한 '섬' 같은 마을이다. 마을로 향하는 길이 좁은 외길인 데다 긴 장마가 시작되면 파로호의 물이 불어, 그 험한 길마저 물에 잠기기 때문이다. 휴대폰도 인터넷도 쉽게 제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만큼 깊은 산중, 하지만 장마철에는 보트를 이용해야만 겨우 오갈 수 있다는 독특한 지역적 특성 덕분에 이 마을에는 자연스럽게 '오자'란 단어가 따라붙는다. 물어 물어 찾아오는 이를 제외한다면 분명 하루 종일 고요한 침묵에 잠겨있을 마을을 운동화 끈까지 다부지게 여미고 찾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길고 느린 숨쉬기가 필요했다.



제법 길게 굽이굽이 이어진 길에 지루해질 때쯤 해산터널을 끝으로 비수구미 마을 주변에 도착하게 된다. 최북단, 최고봉, 최장터널이라

씨진 표지판의 글귀를 설렁설렁 읽으며, 그 주변으로 이어진 트래킹을 눈으로 둘러본다. 6.5km 길이의 이곳의 트래킹 코스는 제법 걸을 줄 안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입소문 난 명소다. 뽕뽕하게 우거진 숲 사이로 이어진 작은 오솔길은 볼썽 야생동물이 등장해도 하나 여상하지 않을 듯 야생의 생생함을 간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지역은 조선시대 왕궁 건축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나무를 보호하던 곳으로 지금도 휴식년제를 이용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는 오래 보존된 야생숲길을 걸을 수 있다.

이름마저 낮선 산속의 그 섬, '비수구미 마을'

길게 기지개를 펴며 한숨 돌렸다면, 본격적으로 비수구미 마을로 발길을 옮겨본다. 해산터널을 기준으로 비수구미 마을로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지대인 해산령실터까지 차로 이동해 내리막 산길을 걷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흔아홉의 굽잇길을 달려 파로호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거나 호수를 옆구리에 끼고 걸어가는 방법이다. 비수구미 마을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비수구미 폭포를 감상하며 걷고 싶다면 내리막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계절과 날씨에 따라 통행이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편치 않을 여행을 각오하며 걷기 시작한 길. 하지만 비장한 각오가 무색할 만큼 산등성이 옆을 끼고 반짝이는 북한강의 운술은 한없이 황홀했으며, 평탄하게 이어진 길이 지루하다 느낄 때 즈음 언덕너머 팔랑거리는 바람의 뒤꽂무니를 따라 청푸른 계절이 펼쳐졌다. 계절이 바뀔 때면 야외로 나가고 싶어 눈치 없이 간지러운 발뒤꿈치에 힘을 주어 꼭꼭 흠길을 걷는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도록 숨을 내쉬며 도착한 마을은 과연 한적했다.



사실 겨우 한 손에 꼽을만한 주민이 모여 사는 마을은 남다른 볼거리가 숨겨진 곳은 아니다. 그저 험덕이는 공기청정기에 의지하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고, 뽕뽕 속이 비치는 계곡물에 손끝을 담가 볼 수 있으며, 주인장이 직접 산에 올라 따왔다는 산나물로 차려낸 밥상을 받아들 수 있는 정도. 그럼에도 알음알음 이곳을 찾는 낮선 얼굴의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어느새 자연 본연의 모습이 특별해질 정도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적어도 이곳에서만만큼은 이른 아침 창문을 여는 것을 망설이진 않아도 될 테니 말이다.

무엇이든 특별하지 않아, 더 특별한 비수구미 마을의 단점을 딱 하나만 손꼽자면, 쉽게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없이 게을러지는 몸과 마음을 다독여, 다시 길을 나선다.

그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파로호'와 '평화의댐'

청정한 자연경관으로 인해 언뜻 연상하기 어렵지만, 화천은 강원도에서도 전쟁의 상흔이 깊게 남아있는 지역이다. 비수구미 마을과 지척인 파로호와 그 파로호 상류의 평화의 댐은 그 전쟁의 흔적을 가장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





부지런한 강태공이 낚싯대를 드리운 사이 멀리 산안개와 아른아른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여름날의 호수는 그야말로 낭만적인 풍경을 자랑한다. 호수의 이름은 파로호로 본래 북한강 협곡을 막아 축조한 화천댐으로 인해 생겨난 인공호수다. 본래 화천호로 불렸던 호수가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란 뜻의 파로호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수만 명의 북한군과 중공군이 이곳에 수장되면서부터다. 8.15 광복 직후엔 38선으로 막혀있었던 이 주변 지역을 거닐 수 있는 것은 당시 전쟁의 승리로 이 지역을 되찾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천과 인접 지역인 양구에 걸쳐 있을 만큼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호수가 온통 붉게 물들었을 만큼 치열했다는 그날의 전투는 아직도 이곳 주민들이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상처이자, 아픔이다. 승리한 전투조차 전쟁의 참혹한 상흔을 가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지도 모른다. 호수 위쪽으로는 북한의 임남댐의 수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평화의 댐이 있어 함께 둘러보면 좋다.



이 땅이 다시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 '비목공원'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지 녘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목이여' 교과과정에도 실려 친숙한 가곡, '비목'은 한국전쟁 당시 모비명 하나 쓰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청년들을 위한 진혼곡이다. 장교로 군복무를 했다는 작사가는 외진 수풀 사이 돌무덤과 녹슨 철모가 놓여 있는 모습에 곡을 썼는데 그 장소가 바로 비목공원이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젊은 청년들이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사그라들지 않도록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때다.

〈글. 권혜리/사진. 김규성〉

대체 스프링을 사러 어디로 갈 거야?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평양대학교 구내식당

평화야, 너 수업
몇 시에 끝나?

나? 오늘은 아마 2시쯤
끝날 것 같은데?



그럼 끝나고 마트 갈래?
MT갈 때 필요한 것 좀
같이 사자.

좋아! 나도 스프링 하나
사야하니까 먼저 가 있을게.
스프링 파는 데로 와.



오케이! 그럼 있다 봐~!!

평양 시내 대형마트

평화 녀석 2시에 끝나다더니 왜 안와?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출장서비스

전기판넬
배관부속
PVC
앵글
실리콘
정화조

대박세일 50%

대한이가 많이 늦네!

속옷 총정리
50% 세일!

류평화! 너 왜 안와?
약속 까먹었지?



무슨 소리야?
난 아~까 스프링 다 고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



야, 나 지금 스프링 파는데
거든! 너 지금 옆에 뭐가
있는데?



지금 마네킹 옆인데??

이벤트
6.1~15 50%세



헐!! 야 무슨 스프링가게에
마네킹이 있어?

스프링 파는 곳이니까
당연히 마네킹이 있지!



* 스프링(북한말) = 솥(남한말)



낙지 아닌 오징어로 만드는 '낙지순대'

오징어는 동해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많은 양이 잡히기 때문에 식량이 여유롭지 못한 북한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다.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 부르고, 남한의 낙지는 오징어라 바꿔 부르는데, 뒤바뀐 이름 덕에 오징어 속에 소를 채워 폭 삶은 오징어순대가 북한에서는 '낙지순대'라 불리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삶은 오징어순대를 바로 잘라서 먹지만, 북한에서는 속 재료가 부스러지는 것을 막고자 프라이팬에 굽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오징어 순대, 아니 낙지 순대는 싱싱한 오징어에 취향에 맞는 소를 채워 넣은 뒤 바로 삶아 먹기 때문에, 바다의 향과 뱃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포만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요리재료

오징어 2마리(다리 제외), 소고기 간 것 200g, 표고버섯 2개, 당근 1/6개, 숙주 1/4봉, 계란 2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1개, 두부 1/4모, 당면 30g, 대파 30g, 전분가루 1큰술, 참기름 1큰술, 소금 약간, 후추 약간, 다진 마늘 약간, 깨소금 약간



요리방법



① 오징어는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몸통을 잡고 다리를 잡아당겨 내장을 제거한다.



② 당면은 미리 물에 불려놓은 뒤 채를 썰고, 두부는 으깨서 준비한다.





3 파, 마늘, 당근, 숙주, 표고버섯, 풋고추, 홍고추 등의 야채는 소로 넣을 수 있도록 잘게 썰어 준비한다.



4 잘게 썬 야채와 쇠고기를 계란, 전분가루, 참기름, 후추, 깨소금, 소금과 함께 섞어 버무려준다.



5 오징어를 귀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뒤집은 뒤, 몸통에 소를 채워 이쑤시개로 입구를 봉한다.
※ 오징어를 삶으면 크기가 작아지므로 소를 80% 정도만 채워야 터지지 않는다.



6 찜통에 넣어 40분간 약불로 찜 뒤 충분히 식혀준다.



7 완전히 식은 순대를 먹기 좋은 두께로 썰어준다.



8 계란 흰자로 옷을 입혀 프라이팬에 부쳐주면 완성.

<글·사진, 요리연구가 박민지>

오랜 세월 함께 한 토착음식, 순대

순대는 19세기 조선의 요리책인 '시의전서'에 기록돼 있을 만큼 오랜 기간 우리민족이 즐겨온 음식이다. 그 종류로는 돼지, 소 등 동물의 창자에 우거지나 찰밥을 넣은 고기 순대부터 명태, 오징어 등 해산물을 이용한 순대까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아바이순대

'아바이순대'는 함경도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돼지의 대창 속에 선지, 찰쌀밥, 채소 등을 넣어 만든다. '아바이'는 아저씨, 아버지를 존칭하는 사투리로, 순대 크기가 커서 '아바이순대'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의견이 있다.

명태순대

함경도 해안가의 토착 음식인 명태순대는, 명태가 흔했던 지역에서 만들어 먹었으나, 다른 순대에 비해 만드는 방법이 까다로워 현재는 맛보기 어려운 음식이 됐다. 명태의 입이나 아가미를 손을 넣어 내장과 알을 꺼내고, 속을 채워 넣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찌먹을 수 있다.



고기순대

소창이나 막창에 돼지고기와 찹쌀, 선지 등을 넣은 북한의 대표적인 순대다. 기본적인 순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즐겨 먹는 순대와도 유사하다. 정식명칭 또한 순대이지만 다른 순대와 구분하기 위해 고기순대라 부른다.



북쪽친구들의 마음, 이렇게 얻어 봐요!



남한사회 정착 위해 자기경쟁력 기르는 걸 돕고 싶어요!

라일구

계획 경제하에 배급제만 익숙한 북녘 동포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일한 만큼 성과를 받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본주의가 개인에게 주는 이점, 그리고 사회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자본주의 경제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이야기 해주고 싶네요. 남한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가끔 볼 수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훗날 남북통일이 되면 피치 못할 여러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데 그런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식시키고 경쟁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고 갑자기 얻어지는 것은 없으며, 인내를 갖고 한걸음 한 걸음 부단히 정진하다 보면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그릴 수 있다는 믿음 전해주고 싶네요.



K-드라마, K-pop에 대해 설명해줄래요!

달님

일단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려면 K-드라마, K-pop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남한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연예인 이야기입니다. 요즘 핫이슈인 '태양의 후예'를 남북한 사람이 같이 보고 OST(주제가)도 따라 부르면 금세 친근감이 생길 것입니다. '송송커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 연예인들 이야기도 할 것이고 '북한에도

송중기처럼 대세배우가 있어? 잘생긴 배우는 누구야? 예쁜 여자배우는 누구야?' 이렇게 말을 트기 시작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여기서 헤어지기 아쉬우면 카카오톡 단톡방 만들어서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남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갈 것이고 K-pop공연장 가서 좋아하는 가수도 응원하고, 끝나고 맛있는 것 먹으면서 스스럼없이 지내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으니 남한에 적응하기가 쉬울 것이고 남한에 대한 호감도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탈북민들에게 먼저 작은 관심과 배려를...

소라고동

남한에 노오란 개나리꽃이 봄을 알려오듯이, 북한 땅에도 예쁜 꽃들로 봄소식이 전해졌겠지요? 따뜻한 우리의 소식이 북쪽 땅에 많이 전해지면 결국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의 봄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따뜻한 소식을 많이 전하려면, 가장 먼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에 와서도 고생하며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적지 않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실천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에 통일의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지켜주신 호국영웅들에게 편지를 써주세요~

호국보훈의 달, 6월. 이 땅을 지켜주셨던
호국영웅님들께 편지를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ex) 이순신 장군님께, 안중근 의사님께,
유관순 언니에게, 6.25참전 호국영웅님께

- 응모기간 : 2016. 06. 07~ 2016. 06. 27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 :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3명
- 시상내역 : 문화상품권(2만 원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댓글★이벤트도 있어요!

각 기사 하단에 아래 그림처럼 댓글을 남기는 곳이 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 매월 15분을 선정해 4천원 상당의 커피교환권을 드립니다.

댓글과 만족도 기사에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입력



통일을 바라는 마음 SNS로 표현해주세요

6월은 순국선열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신만큼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 남북한 주민이 다 같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죠?

웹진 발행을 알리는 민주평통 페이스북 포스팅(바로 보기)에
통일과 호국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20분을 선정해 배스킨라빈스31 아이스크림콘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 응모기간 : 2016. 06. 07 ~ 2016. 06. 27
- 응모방법 : 하단에 비밀댓글로 남기거나 카카오톡(ID: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30명
- 시상내역 : 배스킨라빈스31 아이스크림콘 교환권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 이벤트

제17기 국내지역회의 참가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각 지역회의별로 5명(총 85명)을 선정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인증샷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사진 3가지를 골라
문화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응모하실 때는 반드시 소속협의회 명을 써주세요.

제17기
국내지역회의
참석 인증샷을
남겨주세요!

- 응모기간 : 국내지역회의 개최 중
(6월 14일~7월 7일)
- 응모방법 : <사진첨부>버튼을 눌러 전송하거나
카카오톡(ID: 행복한통일)에
남겨주세요~
- 당선자수 : 85명
- 시상내역 : 커피 교환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사진첨부
하러가기 →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가정의 달, 가족과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위로해주세요!'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070@naver.com	제임스유
2	**reny2002@hanmail.net	김희원

♡ '어버이날, 복讎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xhdfud789@naver.com	천하
2	**r328@daum.ne	사랑하는 대한민국

♡ '가족들과 함께 맛보고 싶은 북한 요리'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o5011@naver.com	마로니에
2	**e215@naver.com	강단애미
3	**ain177@Gmail.com	다인
4	**8374@naver.com	북한응원단
5	**llo43210@naver.com	pp
6	**wlqkf@hanmail.net	두부상
7	**ekgks@naver.com	rnekgks
8	**dacad4@naver.com	루네파파
9	**nkek00@gmail.com	예고구
10	**reny2002@hanmail.net	김희원
11	**foodstyle@naver.com	소문난삼부자
12	**neunmi@nate.com	골든벨
13	**h413@naver.com	피그렛다
14	**sr1004@hanmail.net	베이비슈

15	**b852159@naver.com	일병곰돌이
16	**eoleoo@hotmail.co.kr	다시또한번
17	**an18@naver.com	김미응
18	**827426@naver.com	강연지
19	**lloctober@hanmail.net	행복가득
20	카톡	김민아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2073-09**	9	010-9900-50**
2	010-2718-64**	10	010-2418-73**
3	010-3113-28**	11	010-2516-11**
4	010-3709-71**	12	010-4033-70**
5	010-4006-31**	13	010-5288-93**
6	010-4850-44**	14	010-9318-49**
7	010-6483-66**	15	010-9975-75**
8	010-7713-79**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